

2024.04.23.(화) 증권사리포트

두산퓨얼셀

한번 더 기다려야 한다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더딘 외형 증가 속도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기존 27,000원에서 24,000원으로 11% 하향. 목표주가는 2024년 매출액에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 및 EPC 기업의 평균 PSR 4.4배를 적용하여 산출
24년 매출액 추정치를 5,08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27% 하향하였으며, 고정비 부담 및 저수익 상품 매출 반영으로 영업이익 193억원으로 큰 폭으로 하향. 국내의 경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따른 연료전지 매출이 계획대로 나타날 예정이나, RPS(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화) 제도 관련 국내 연료전지 프로젝트 및 중국향 매출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반영
다만, 일반수소발전 입찰 시장으로 연간 100MW 규모의 신규 수주가 가능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및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을 통해 30~40MW 추가 수주를 기대. 유지보수를 감안시, 국내에서 연간 최소 5,000억원 매출 확보 가능. 해외 연료전지 수출 여부에 따라 추가 성장 여력 존재.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수익성 상품 재고 정상화가 되는 25년부터 영업이익률 6~7% 수준으로 회복 전망

1분기, 연료전지 매출 부진 전망, 고정비 부담 지속 불가피

1분기 매출액 496억원(-0.7% y-y), 영업이익 7억원(-78% y-y, 영업이익률 -1.4%)을 기록하면서 시장컨센서스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 연료전지 제조 및 납품 매출액이 부진한 가운데, 유지보수 중심으로 매출액 기록되어, 고정비 부담 여전. 재고자산 부담은 하반기로 가면서 해소되어 운전자본 부담 완화 전망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60.9	508.0	644.3	734.7
증감률	-16.4	94.7	26.8	14.0
영업이익	1.6	19.3	42.5	54.2
증감률	-77.3	1,076.1	120.2	27.5
영업이익률	0.6	3.8	6.6	7.4
(지배지분)순이익	-8.5	4.7	27.0	38.6
EPS	-130	72	412	590
증감률	적전	흑전	469.8	43.1
PER	N/A	268.7	47.2	33.0
PBR	3.7	3.1	2.9	2.8
EV/EBITDA	112.6	40.9	23.1	17.9
ROE	-1.6	0.9	5.1	6.9
부채비율	108.9	130.8	127.2	114.3
순차입금	275.0	273.1	221.8	118.4

단위: 십억원, %, 원, 배



현대건설

해외가 견인하는 매출액

[출처]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

1Q24 잠정실적: 컨센서스 상회

현대건설 1Q24 실적으로 매출액 8.5조원(+41.7%yoy), 영업이익 2,509억원(+44.6%yoy)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서프의 배경으로 현대건설의 건축주택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부문에서의 매출액 추정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현대건설 국내 원가율이 92%가 나오면서 추정치를 상회했다. 영업외 특이사항으로 환율 상승으로 환평가이익 535억원이 반영됐다. 1Q24 분양으로 현대건설 2,596세대, 현대ENG 3,700세대를 기록했다. 미분양 세대수는 현대건설 약 5천세대, 현대ENG 약 5천세대다.

국내 PF상황 업데이트: 연말 브릿지PF 2조원 미만으로 관리

현재 약 4조원 규모의 브릿지PF를 연말까지 2조원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CJ 가양부지(브릿지론 연대보증 1.5조원)와 가산LG부지(브릿지론 연대보증 1,700억원)는 올해 내로 착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마트 가양(브릿지론 연대보증 1조원)과 르메르디앙(브릿지론 연대보증 2,200억원), 힐튼(브릿지론 연대보증 2,000억원)은 내년 착공 목표다. 수서역세권(브릿지론 자금보충 1,500억원)의 경우 사업권을 매각(2분기 중 수익 인식 전망)했다. 브릿지PF 현장이 전부 서울 현장에 있어, 착공 전환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 PF현장 재분류 및 경공매등의 정리는 현대건설에 해당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본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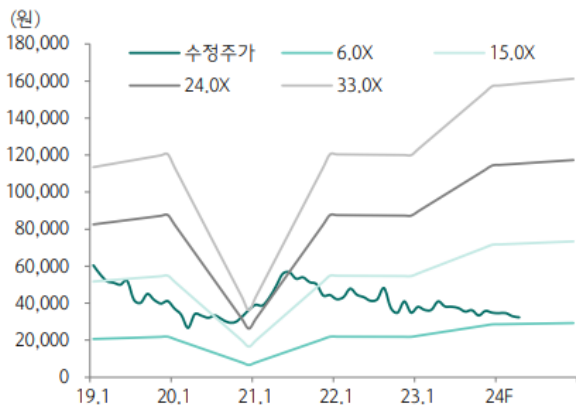
현대건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45,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4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9.0배를 적용했다.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올해 추정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우려되는 미분양이 존재하고 부진한 분양 환경을 반영하여 밸류에이션을 다소 하향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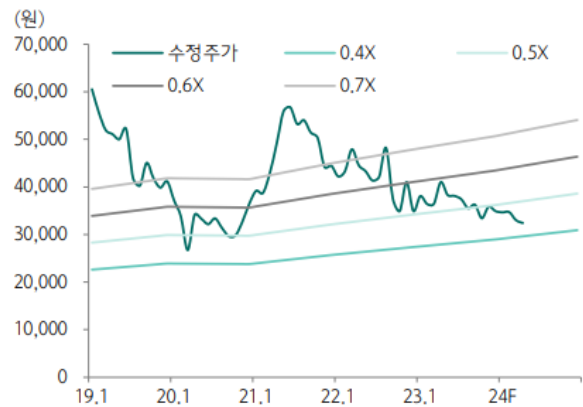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1,239.1	29,651.4	33,466.2	28,419.8
영업이익	574.9	785.4	980.0	791.7
세전이익	753.8	939.5	1,089.0	799.7
순이익	408.9	535.9	573.7	506.7
EPS	3,637	4,767	5,104	4,508
증감율	(0.38)	31.07	7.07	(11.68)
PER	9.60	7.32	6.35	7.19
PBR	0.51	0.48	0.42	0.40
EV/EBITDA	3.54	3.64	2.20	1.61
ROE	5.49	6.77	6.84	5.72
BPS	68,380	72,383	76,887	80,794
DPS	600	600	600	600

도표 3. PE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4. PB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롯데웰푸드

투심 회복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롯데웰푸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 이는 코코아 선물 가격 상승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170% (1/1~4/18) 올랐고 특히 3월 들어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와 가나에서 기상악화, 카카오 나무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작황 부진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코코아 가격의 추가 상승 여지가 높아 보인다. 다만 롯데웰푸드 원재료에서 코코아 비중이 약 2% 수준에 불과해 큰 우려 요인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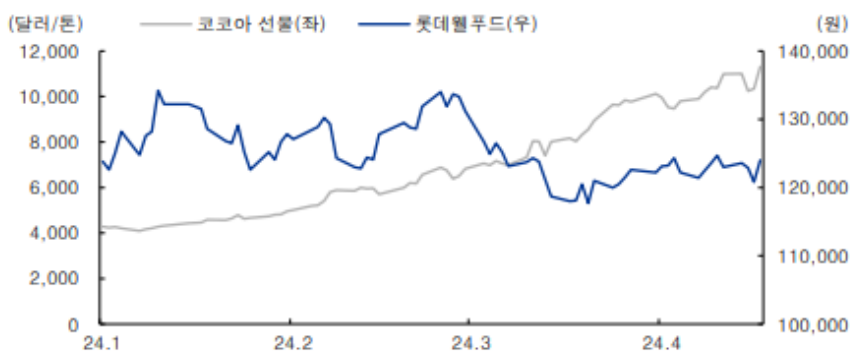
동사는 최근 빼빼로 등 초콜릿류 건·빙과 제품 17종에 대해 평균 12%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 했다. 5월부터 순차 반영될 예정이며, 코코아 가격으로 인해 악화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향후 주가 흐름도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인건비를 제외한 원재료 비용은 약 60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코아 투입 원가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유지류 원가 하락분과 상쇄돼 약 100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매출 상승분을 감안하면 매출원가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웰푸드에 대한 실적 추정치 및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3,203	4,066	4,249	4,454	4,673
영업이익	112	177	214	226	241
세전이익	52	110	153	178	189
지배주주순이익	47	71	107	117	123
EPS(원)	5,931	7,476	11,349	12,381	13,080
증가율(%)	9.1	26.0	51.8	9.1	5.6
영업이익률(%)	3.5	4.4	5.0	5.1	5.2
순이익률(%)	1.4	1.7	2.3	2.6	2.7
ROE(%)	2.9	3.5	5.1	5.4	5.4
PER	20.7	16.6	10.9	10.0	9.5
PBR	0.6	0.6	0.5	0.5	0.5
EV/EBITDA	8.0	5.5	5.4	5.4	5.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코코아 선물 가격과 롯데웰푸드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한솔케미칼
 삼성전자 HBM 시장 점유율 확대 수혜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HBM 시장 점유율 상승 전환 예상

삼성전자의 HBM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쟁업체 대비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HBM 사업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NVIDIA와 AMD 등의 주요 고객에게 신제품 공급을 시작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HBM 양산 capacity 역시 지난 1Q24 50K/월에서 4Q24 105K/월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솔케미칼의 HBM소재(과산화수소)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할 한솔케미칼의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에 주목해야만 할 시점이다.

1Q24 영업이익 376억원(+79%QoQ), 턴어라운드 전망

한솔케미칼의 1Q24 실적은 매출액 2,031억원(+6%QoQ)과 영업이익 376억원(+79%QoQ)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HBM, DRAM, NAND) 가동률이 상승 전환되고, QD 소재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Q24에는 삼성의 NAND 가동률이 크게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반도체 소재 부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실적 반등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되며, 2024년 총 영업이익이 1,461억원(+18%YoY)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가 매수 기회, 반도체 소재 업종 top pick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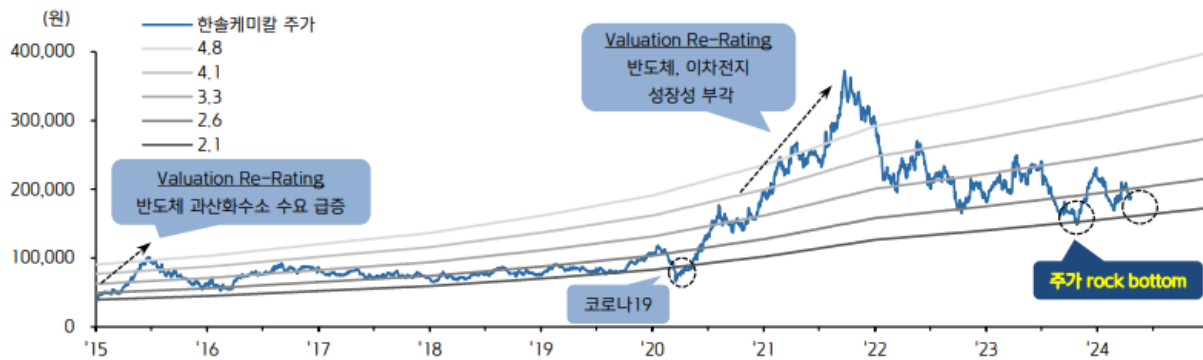
메모리 가동률 반등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던 한솔케미칼의 주가는 '주요 기업들(ASML, TSMC)의 컨퍼런스 콜 실망감'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SML의 신규 장비 수주 감소는 중장기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오히려 긍정적이고, TSMC의 반도체 시장 전망치 하향 조정('24년 +10% 이상 → 대략 +10%YoY)도 '메모리 시장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평가 상승 이후의 수요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분기 실적의 추세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을 염두에 뒤편 할 것이다. 당사는 rock bottom 수준에 근접한 밸류에이션이 한솔케미칼 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솔케미칼에 대한 목표주가 27만원을 유지하며, 반도체 소재 업종 top pick으로 매수 추천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885.5	771.7	838.8	1,021.5
영업이익	186.0	124.1	146.1	225.2
EBITDA	235.2	177.2	201.2	281.0
세전이익	194.2	135.6	156.7	233.6
순이익	167.0	108.7	125.4	186.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55.1	105.3	119.1	177.5
EPS(원)	13,685	9,294	10,546	15,719
증감률(% YoY)	4.6	-32.1	13.5	49.0
PER(배)	13.6	24.4	17.6	11.8
PBR(배)	2.75	3.04	2.23	1.93
EV/EBITDA(배)	9.8	15.9	12.4	8.7
영업이익률(%)	21.0	16.1	17.4	22.0
ROE(%)	21.4	13.1	13.4	17.5
순차입금비율(%)	12.4	16.3	10.6	4.8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솔케미칼 12개월 Trailing P/B Ratio: rock bottom 수준의 주가 vs.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파인애플

1Q24 Preview : 견조한 실적 전망, 하반기는 더욱 기대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올해부터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이유

파인애플은 올해부터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수 존재한다. 우선 중국 폴더블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다.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 오포, 샤오미 등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 iReserch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폴더블폰 출하량은 약 700만대로 전년대비 114.5% 증가했으며, 올해는 약 1,100만대를 전망하고 있다. 1) 동사는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사를 통해 중화권으로 내장хин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사 전체 매출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했던 중화권 내장хин지는 올해 약 3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2) 국내 폴더블폰 기종 증가 역시 동사에게 기회 요인이다. 기존 2개 모델에서 올해는 '폴드 슬림형 모델'이 추가되면서 3개의 폴더블 모델 출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급형 폴더블 모델'까지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결국 모델 대수 증가(Q)에 따른 동사의 실적 성장은 기정 사실이다. 이 외에 3) 신규 성장 동력인 외장хин지의 M/S 약 20% 확보가 예상되며, 4) EV Module Housing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1Q24 Preview: 내장хин지 견조한 실적 전망, EV Module Housing 실적 본격 반영

파인애플의 1Q24 실적은 매출액 695억원(+36.0%, YoY), 영업이익 22억원(+104.3%,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고객사 내 M/S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제품 Multi Plate Ass'y(내장хин지)의 매출액은 중화권향 물량 확대로 560억원(+38.6%, YoY)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부터 초도 물량 양산이 시작된 EV Module Housing의 경우 작년 연간 39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나, 현재 월간 약 25~3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EV Module Housing 매출액은 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EV Module Housing은 동사의 주력 제품인 힌지 대비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 효과로 OPM은 3.1% (+1.0%p, YoY)를 기록하며 향후에도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신규로 반영되는 Hinge Module Ass'y(외장хин지)의 경우 2Q24부터 양산에 돌입하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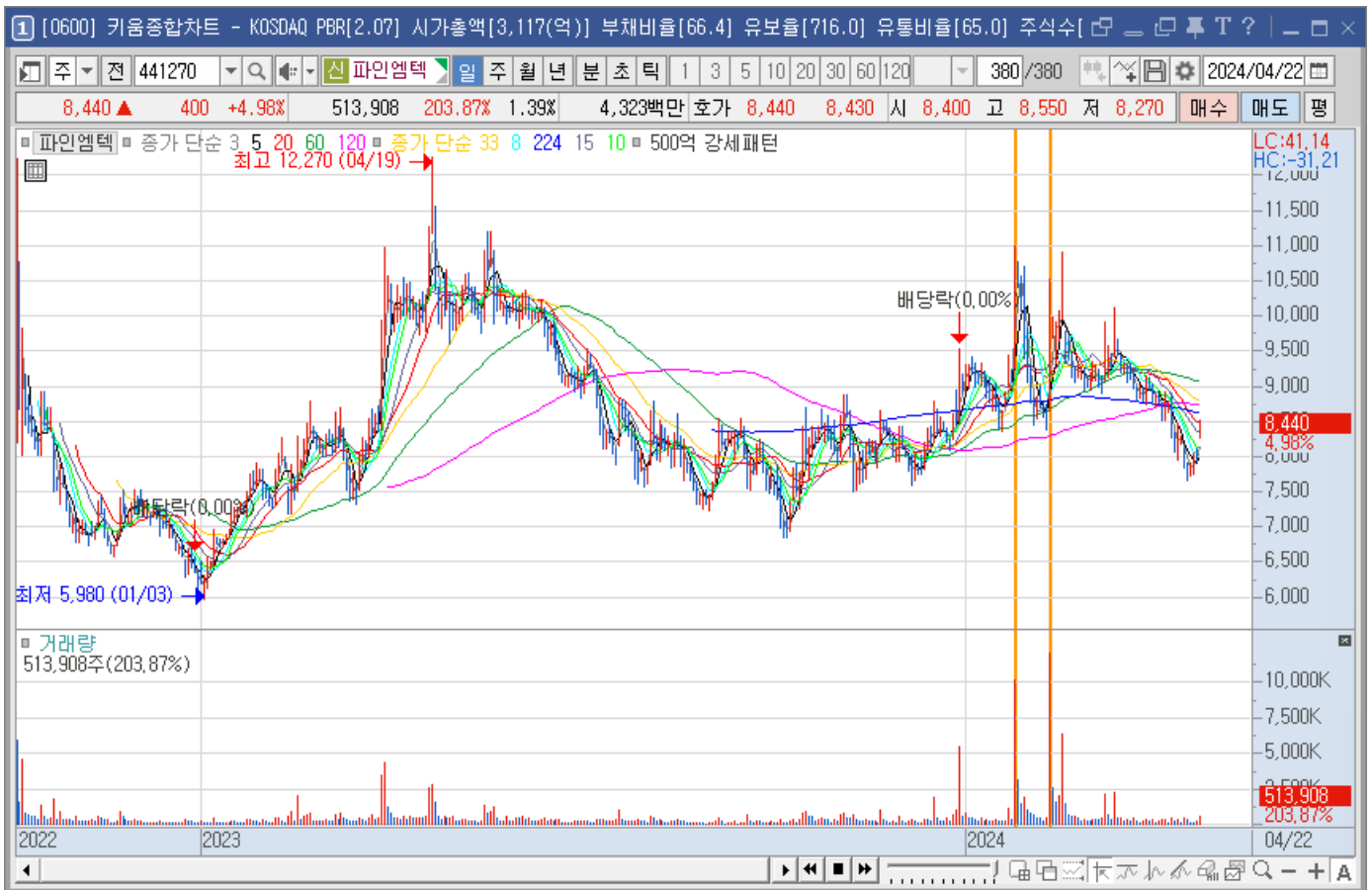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5,712억원, 영업이익 402억원 전망

파인애플의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712억원(+50.3%, YoY), 영업이익 402억원(+97.5%,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폴더블 스마트폰 외장хин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독점하던 경쟁사 외에 이원화 업체로 선정되어 2Q24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외장хин지 매출액은 5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점유율은 폴더블 한 개 모델의 약 20%를 가정했다. EV Module Housing은 베트남 VINA CNS 3공장의 증설이 올해 6월 마무리됨에 따라 연간 5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116	380
영업이익	0	0	5	20
세전이익	0	0	(7)	15
순이익	0	0	(7)	11
EPS	0	0	(710)	299
증감율	N/A	N/A	N/A	흑전
PER	0.0	0.0	(8.7)	30.1
PBR	0.0	0.0	1.8	2.2
EV/EBITDA	0.0	0.0	30.2	12.0
ROE	0.0	0.0	(6.7)	7.0
BPS	0	0	3,452	4,080
DPS	0	0	0	0





한국항공우주

무난한 실적과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

[출처] 키움증권 이한 애널리스트

1분기 영업이익 407억원, 컨센서스 부합 전망

1분기 매출액 7,846억원(yoy +37.9%), 영업이익 407억원(yoy +109.9%, OPM 5.2%)을 달성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폴란드형 FA-50 매출 인식과 KF-21 개발, TA-50 및 수리온 납품 등 전반적인 국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분기에 인식될 예정이던 약 800억 규모의 이라크 기지재건 잔존 매출 중 대부분이 2분기로 이연될 것으로 추정한다. 생산 차질 이슈로 보잉의 항공기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은 기체부품 부문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하반기는 항공기 생산 정상화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엠브레어와 1.2조원 규모의 UAM 기체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우주 및 미래 사업 확대 기대

동사는 올해 약 2조원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 사업 입찰을 포기하며 우주 부문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경우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입찰을 포기한 상황이지만 위성 사업을 중심으로 우주 부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425 사업 등 다양한 위성 플랫폼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국가와 군/민간용 위성 수출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사체 관련 사업도 글로벌 발사체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 사업 부문에서도 다목적 소형 무인기 개발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시작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을 완료 후 6세대용 KF-21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9,000원 유지

2024년 매출액 3조 8,123억원(yoy -0.2%) 영업이익 2,429억원(yoy -1.9%, OPM 6.4%) 달성을 전망한다. 올해 실적은 다소 무난한 편이지만 다수의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상반기에 KF-21 초도 양산 수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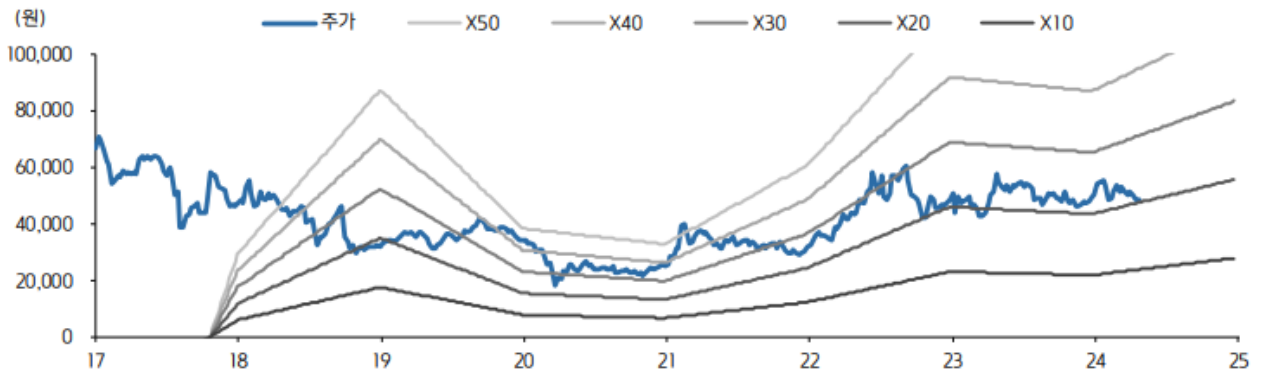
예상된다. 또한, 3조원 규모의 중동항 수리온 및 중앙아시아항 FA-50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수주 가이던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록히드마틴과 준비 중인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이 구체화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다.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69,000원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786.9	3,819.3	3,812.3	4,238.6
영업이익	141.6	247.5	242.9	331.2
EBITDA	276.8	368.5	362.8	489.3
세전이익	122.1	268.7	263.9	337.5
순이익	115.9	221.4	209.5	268.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18.5	224.0	212.0	271.1
EPS(원)	1,215	2,298	2,175	2,782
증감률(% YoY)	85.4	89.1	-5.4	27.9
PER(배)	41.9	21.8	22.9	17.9
PBR(배)	3.47	3.05	2.83	2.56
EV/EBITDA(배)	14.2	12.9	13.7	10.7
영업이익률(%)	5.1	6.5	6.4	7.8
ROE(%)	8.8	14.8	12.8	15.0
순차입금비율(%)	-72.0	-8.3	4.3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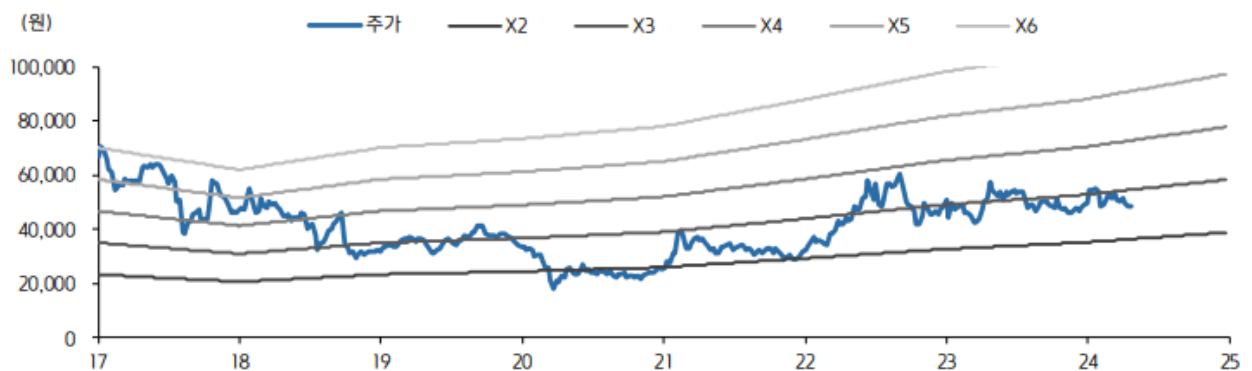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12M Forward P/E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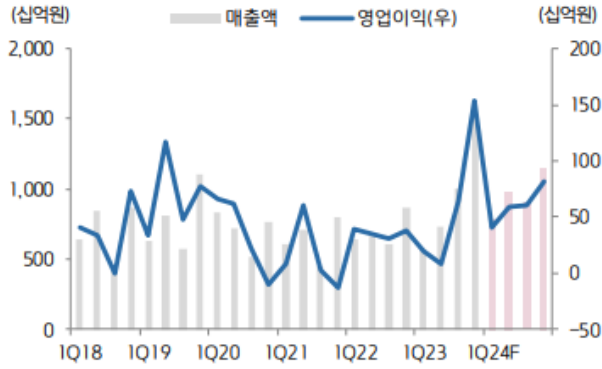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12M Forward P/B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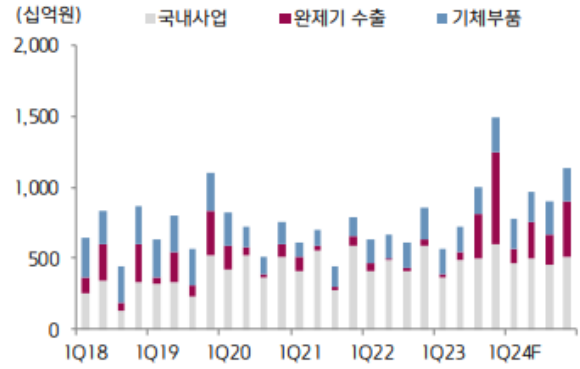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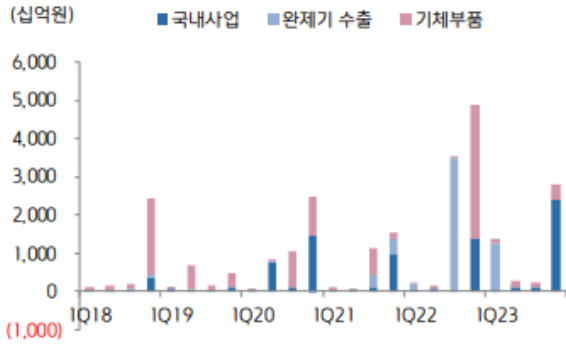
자료: 한국항공우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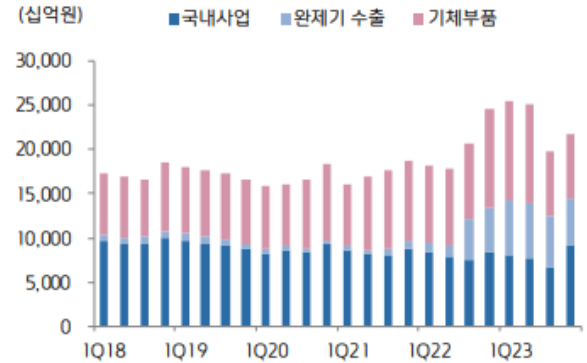
자료: 한국항공우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



자료: 한국항공우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항공우주 부문별 수주 잔고 추이



자료: 한국항공우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엔씨소프트

실질적 변화가 중요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동사 목표주가 20만원으로 하향

동사의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Outperform을 유지한다. 신규 목표주가는 24E 지배주주순이익 1,952억원에 PER 22.5배를 적용한 결과이다. 동사 매니지먼트는 블록체인과 콘솔 등 미래지향적 사업에서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 개발 등 핵심 실무에서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전처럼 투자에 소극적 성향을 지속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양지해야 할 것이다.

1분기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예상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84.3% 감소하고 전기대비 232.6%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매출은 TL의 온기 효과가 기존 라인업의 자연 감소 효과 등을 상쇄하면서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941억원을 예상하며, 모바일게임 매출은 리니지2M과 리니지W의 전분기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전분기대비 10.9% 감소한 2,699억원을 전망한다. 이를 감안한 동 분기 총 매출은 4,04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케팅비가 121억원으로 전기대비 69.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비용 통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탄력적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종합 판단한다.

복합적 변수로 중기 추정치 하향 조정

당사는 동사 24E 및 25E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5.6% 감소 조정했다. 이는 MMORPG 시장의 레드오션화와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경쟁사의 공격적 신작 출시 등을 감안해 기존 모바일 게임 매출을 하향 조정했으며, TL의 경우 현지 테스트 진행 등을 감안시 국내를 제외한 잔여 지역의 출시에 따른 초기 매출 분기를 기존 2Q24E에서 3Q24E로 순연 조정했고, 아이온2 출시 시기도 기존 2Q25E에서 3Q25E로 순연 조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LLL의 경우 현재 출시 초기 분기를 1Q25E로 가정해, B2P 기준 초기 분기를 포함한 이후 4개년 누적 판매를 200만장으로 설정했으며, 베이직 프라이스 60달러와 인게임 모델 동시 투입에 따른 PUR 20%와 초기 분기 기준 ARPPU 15달러를 준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했지만 해당 게임의 출시 시기가 26E로 순연될 여지가 있음을 부연 설명한다. 당사의 24E TL과 25E LLL 매출액은 각각 684억원과 665억원으로 현재 추정치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571.8	1,779.8	1,822.8	2,170.3
영업이익	559.0	137.3	134.9	298.4
EBITDA	664.9	249.2	260.1	431.3
세전이익	609.1	206.2	258.9	424.4
순이익	436.0	213.9	196.2	317.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35.7	212.1	195.2	316.0
EPS(원)	19,847	9,663	8,893	14,393
증감률(% YoY)	9.8	-51.3	-8.0	61.8
PER(배)	22.6	24.9	19.0	11.7
PBR(배)	3.08	1.62	1.10	1.03
EV/EBITDA(배)	12.1	15.3	8.4	4.7
영업이익률(%)	21.7	7.7	7.4	13.7
ROE(%)	13.7	6.6	5.9	9.1
순차입금비율(%)	-56.6	-45.4	-45.6	-47.0

